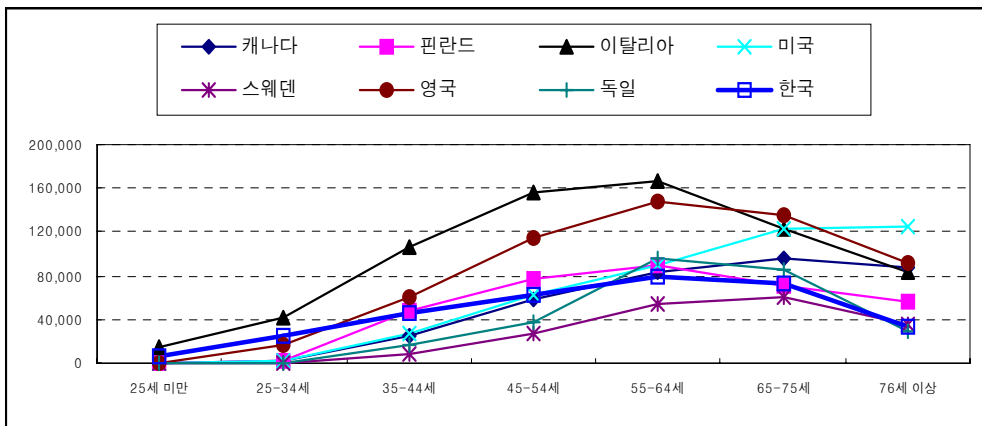


연령별 자산분포의 국제비교

-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자산분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의 규모가 함께 증가하다가 65세 이상 고령계층에서 그 규모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별로 자산의 절대적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.
 - 순자산)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,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탈리아와 영국의 경우 젊은 세대의 자산보유액이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국가로 나타남.
 -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젊은 세대의 자산보유액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5-64세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아짐.
- 우리나라의 가구 자산규모는 55-6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졌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데, 이는 독일, 영국, 이탈리아 등의 국가와 유사한 형태임.

[그림 1] 연령대별 순자산(중위자산) 분포

(단위 : 달러)



주: OECD국가들의 2000년경의 자산규모를 2002년 달러로 환산한 수치임. 한국은 2006년 통계청의 「가계자산조사」 자료를 2002년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대미환율로 조정한 수치임.

자료: OECD(2008), *Growing Unequal?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*. 통계청(2006), 「가계자산조사」 원자료.

1) 일반적으로 순자산은 총자산(부동산+금융+기타자산+부채)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것을 의미함.

- 반면, 핀란드와 스웨덴,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고연령대에서의 자산 감소 현상이 매우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고, 미국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조적 양상임.

○ 금융자산과 부채규모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근로세대의 금융자산 규모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됨. 미국과 캐나다, 스웨덴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자산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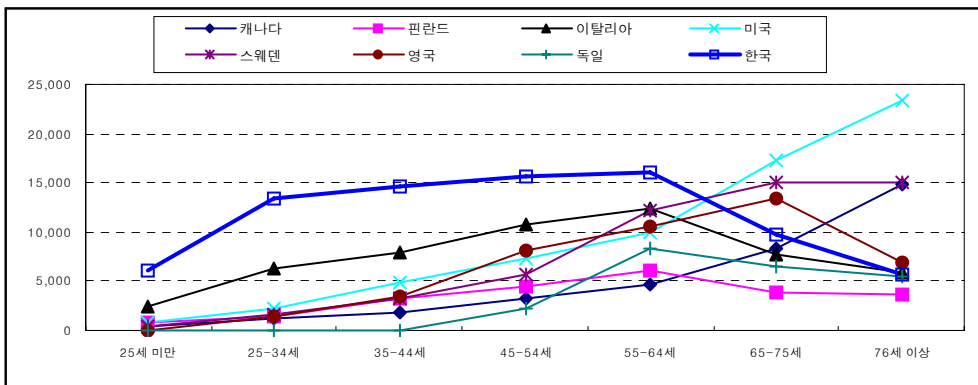
-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별 부채비율(순자산 대비)은 이탈리아와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. 다만 부채규모에 있어서는 핀란드, 이탈리아, 영국, 독일 등의 국가에서 55~65세 연령대에서 가구의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5~75세 연령대에서도 상당한 수준(2,570달러)의 부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.

○ 노동시장을 떠난 고령계층의 소득획득 및 소비생활 유지는 축적된 자산규모의 충분성과 유동성에 의해 좌우됨.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과 금융자산은 노동시장을 은퇴하는 이후 시점(주로 65세 이상)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절대적 규모도 낮게 형성되고 있어 적절한 노후생계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.

- 금융자산은 다른 자산원천에 비해 처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의 단절 또는 감소된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산의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. 또한 가구의 부채규모는 최고령층에 이를 때까지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.

[그림 2] 연령대별 금융자산(중위자산)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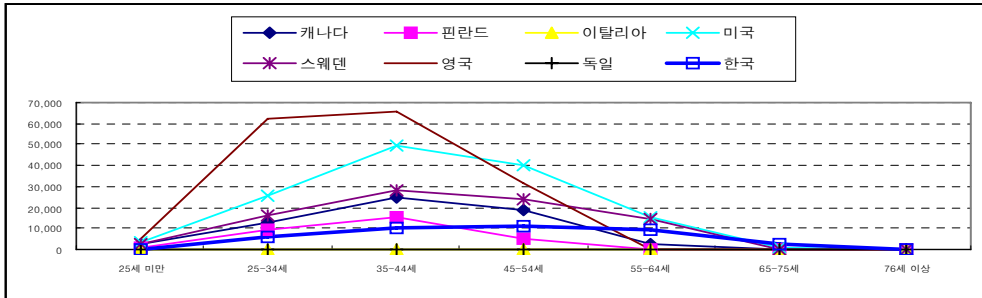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달러)



주: [그림 1]과 동일.

[그림 3] 연령대별 부채규모(중위자산) 분포

(단위 : 달러)



주 : [그림 1]과 동일.

<표 1>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자산분포

	캐나다	핀란드	이탈리아	미국	스웨덴	영국	독일	한국
<순자산>								
25세 미만	0	321	15,534	-193	0	-184	0	7,257
25-34세	1,226	1,132	41,009	1,148	-2	15,676	0	25,399
35-44세	25,401	47,168	106,251	27,932	9,252	60,773	15,911	45,982
45-54세	58,247	76,224	155,338	62,547	27,935	113,988	38,514	63,202
55-64세	83,517	89,054	167,577	90,407	54,062	148,801	95,735	79,505
65-75세	96,349	69,809	123,649	123,428	60,932	135,520	86,164	73,532
76세 이상	87,958	56,791	83,882	125,033	35,779	91,159	29,546	34,085
<금융자산>								
25세 미만	460	755	2,485	772	360	92	0	6,059
25-34세	1,270	1,509	6,214	2,275	1,664	1,473	0	13,476
35-44세	1,839	3,207	7,829	4,875	3,151	3,401	0	14,731
45-54세	3,241	4,436	10,693	7,374	5,625	8,195	2,201	15,733
55-64세	4,598	6,138	12,427	9,954	12,217	10,611	8,253	16,047
65-75세	8,409	3,773	7,681	17,267	15,031	13,444	6,602	9,775
76세 이상	14,890	3,694	5,965	23,361	15,037	6,998	5,502	5,618
<부채>								
25세 미만	2,540	1,038	0	3,687	2,450	5,018	0	109
25-34세	12,788	9,434	0	26,022	16,561	62,614	0	6,034
35-44세	24,525	15,283	0	49,769	28,023	65,561	0	10,018
45-54세	18,832	4,906	0	39,815	24,316	31,307	0	10,921
55-64세	2,628	0	0	15,236	14,901	276	0	9,365
65-75세	0	0	0	609	0	0	0	2,569
76세 이상	0	0	0	0	0	0	0	0

주 : [그림 1]과 동일.

(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